

학교가 주도하는 AI 교육, 전북서 확산

전북교육청, AI 중점학교 81곳 선정... AI 교육현장 안착·교육과정 혁신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2026년 AI 중점학교 81개교를 선정, 운영한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AI 중점학교는 AI 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연계해 수업·평가·학교 운영의 변화를 이끄는 학교로, 이를 통해 AI 교육의 현장 안착과 학교간 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

다.

올해 AI 중점학교는 학교의 운영 여건과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도형 3개교·중심형 54개교·문화 확산형 24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운영 역량과 교육과정 연계성, 실행 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 활용 수업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유형별로 차등화된 운영비와 AI 활용 수업 설계, 교육과정 재구성,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해 초등학교는 실과·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AI 수업 모델을 중·고등학교는 정보 과목 및 교양장 개설 과목과 연계한 심화

AI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성과는 수업 사례 공유 자료 공개, 권역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선하 미래교육과장은 "정보교육 중점학교는 단순한 시범 운영이 아니라, 학교가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해 교육을 혁신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운영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관리해 도내 모든 학교로 AI 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초등 3학년

사회과 수업 활용 학습자료 제작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할 지역 연계 교육과정 학습 자료를 제작,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료는 전주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의 지역 이해를 높이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보급하는 학습자료는 지역화 교재 '전주의 생활(3학년)'과 연계해 구성했으며, 수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 자료를 보완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의 주요 구성물로는 '전주지도'와 '전주발전놀이'가 있다.

전주지도는 전주의 행정 구역별 주요 문화유산과 생활 공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대형 지도와 스티커로 구성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붙이고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주발전놀이는 보드게임 형식의 모둠 활동 자료로, 놀이 과정 속에서 전주의 역사·문화·환경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질문 카드와 미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 제작을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협의회를 운영했으며, 여러 차례 대면 협의를 통해 교실 적용 가능성, 학생 흥미도, 수업 활용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영상 자료를 제공해 학습자료 활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재훈 기자

익산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대입 진학 성과 보고회 개최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은 지난날 29~30일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 대입 데이터를 분석·공유하는 2026학년도 고등학교 대입 진학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학교별 진학 지도 우수 사례 공유 △익산시 최근 3개년 대입 결과 분석 발표 △진학 지도 현안 관련 자유 토론 △2027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특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학교별 사례 발표와 데이터 분석 자료 공유를 통해 지역 내 진학 지도 사례를 살펴보고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내 교육지원청 중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익산시 최근 3개년 대입 결과 분석 자료'를 공유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료는 익산시 전체 종합 분석과 개별 학교 맞춤형 데이터 2종으로 구성됐으며, 지원청은 해당 보고서를 각 학교에 전달해 데이터 기반의 진학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번 보고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익산 미래인재대입지원단'을 통한 1:1 맞춤형 야간 상담을 실시하고, 매일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개별 학교별 입결 분석을 실시한 사례로, 향후 학교별 진학 로드맵 수립의 참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대학교 K-Food산업연구소가 지난날 26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 'Gulfood 2026'에 참가해 남원시 특산물인 백항과를 비롯한 전북 특화 농특산물 기반 고부가가치 K-Food를 선보였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북 특화 농특산물 기반 K-Food 글로벌 시장 경쟁력 입증

전주대,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두바이 'Gulfood 2026' 참가

백항과 뷰티젤리·남원 바로 한알 등 뷰티 결합 제품군 소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원) K-Food산업연구소는 지난날 26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 'Gulfood 2026'에 참가해 남원시 특산물인 백항과를 비롯한 전북 특화 농특산물 기반 고부가가치 K-Food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전북 특화 농산물을 기반으로 AI 분석 기술과 첨단 가공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K-Food 시제품 개발·사업화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I 기반 소재 분석과 제품 기획, 하이테크 가공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제품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을 점검했다.

박람회 기간 전북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및 융합형 제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해외 바이어 및 유통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 유통망 연계 및 판로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학교와 남원시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지역 농산물의 산업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 해외 유통 채널 발굴을 목표로 진행됐다.

전시 제품으로는 △백항과 뷰티젤리 △남원 바로 한알 △엔자임 그레이드 마토 △슬로우 웨이크 등 식품과 뷰티·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결합한 제품군이 소개됐으며, 전시 기간 동안 195개 국가의 해외 관계자가 부스를 방문해 제품 콘셉트와 활용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행사에서는 해외 유통업체 및 수입·유통 관계자들과 총 32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약 5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는 등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남원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제품 콘셉트와 스토리가 주목을 받으며, 제품 활용 범위 확대와 해외 유통망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지역 농업 자원을 기반으로 한 K-Food 융합 모델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 개발 제품의 유통 가능성과 사업화 전략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이번 박람회 참가 성과를 토대로 지역 농업 자원과 식품 산업, 융합 콘텐츠를 연계한 연구 및 실증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한 글로벌 유통 연계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모집단위 광역화 전공 배정... 후속 지원체계도 구축

1지망 배정 82.5%... 사전 소통·전공 이등 대책 마련 혼란 최소화

본부-교원-학생 '소통협의회' 월 1회 정례 운영... 안정 운영 확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른 전공배정을 완료하고, 지난날 29일 오후 2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날 5일부터 12일까지 전공 신청을 받은 뒤 각 단과대학 전공배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 배정을 진행한 결과, 전체 배정 대상자 2,770명(외국인 특별전형 제외) 가운데 82.5%가 1지망 전공에 배정됐다.

대학 측은 "모집단위 광역화 도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배정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전북대는 모집단위 광역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본부

와 교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모집단위 광역화 소통 협의회를 구성해 월 1회 정례 운영키로 했다. 전공배정 과정 전반에 대한 학생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공배정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날 28일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와 사전 소통 자리를 마련해 1지망 전공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전화·전과 확대, 다전공 이수 기회 확대 등 전공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사전 논의했다.

전북대는 복수전공과 부전공 운영을 확대해 2학년 학생으로 일정 비율을 지정·선발하고 동일 모집단위 소속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융합·연계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희망 학생 전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학·전과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해 희망 전공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학생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대는 학생자치기구와 연계한 학기별 설명회와 홈페이지 공지,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전공배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고,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해 학생들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공배정 이후에는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해 비희망 전공 배정 학생을 우선으로 학사제도 안내와 학과 적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공 배정 인원이 130%를 초과한 4개 학과를 '선도형 학과'로 지정·선발하고 동일 모집단위 소속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민주적·체계적인 국교련 운영”

한상욱 전북대 교수, 국교련 신입 상임위원장 선출 고등교육 발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등 제시



전국국공립 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제29대 상임위원장에 전북 대학교 교수 회장인 한상욱 교수(사범대 물리 교육전공)가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다.

국교련은 지난날 29일 국립강릉 원주대학교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세 명의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를 얻은 한 교수가 차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상임위원회와 공동회장단 회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교련을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과 교수 권익과 직결된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교수 수당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회원과 교수회장들의 지지를 얻었다.

한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갑갑적 총장직선제 폐지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에 맞서 사회 정의 구현과 대학 자율성 수호에 앞장서 온 국교련의 역할을 이어가고, 국·공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교수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사업의 수혜가 일부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국·공립대학으로 확산돼야 동반 발전이 가능하다"며 "대학 간 교육·연구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RISE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제3장의(2)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조항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지자체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간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통합의 장점은 있지만, 구성원들의 뜻이 존중되고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국립대학이 설립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국립대학의 법적 근거가 될 국립대학법은 국회에 다섯 차례 발의되었음에도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 축인 만큼 교육부와 국회, 유관 단체들과 협력해 국립대학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학부모교육 주체성 강화’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올 주요 사업계획 확정 생애주기 등 4대 추진방향 설정... 11개 사업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걸)가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을 강화해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 학생 성장을 돕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학부모지원센터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학부모 지원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이 계획은 학부모를 단순한 교육 참여자가 아닌 학생 성장의 동반 주체로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부모지원센터는 실효성 있는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학부모 교육 △현장 중심·수요 맞춤형 지원 △학부모 정서·심리 지원 및 갈등 예방 △지역 연계형 학부모 교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 역할', '자녀 교육', '학교·지역 협력' 등 3대 핵심 역량을 중심에 두고 교육·컨설팅·치유·공동체 공간 지원을 아우르는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사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

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학부모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초·중학교 입학 앞둔 신입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2월 중 2026년 새내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 교육은 전주·군산·익산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5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현장 교사 등 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학부모는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권역별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장걸 센터장은 "국정과정인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권한과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회 기능 강화 등 현안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안착시켜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올 전북형 건강증진학교 5곳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평생건강 기를 마련을 위해 2026년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한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스스로 학생들의 건강지표를 진단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주요 건강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주도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5개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당 500만원 내의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는 아동·청소년 주요 건강지표 분야인 △비만 예방 및 체형 균형 △일상생활 속 건강 실천(사력·구강건강 등) △기타 학교

특색 건강증진 사업 중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4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선정 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에서는 학생건강지표 진단과 학교 특색에 맞춘 중점 운영 방안 및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안내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돕고,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강양원 문체체건강과장은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특색을 살린 건강증진 모델"이라며 "학교 스스로 학생의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학교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